



선진미술관서 배운다

유럽편

<25> 프랑크푸르트 슈테델 미술관

독지가·시민들이 조성한 '그림의 숲'을 거닐다



프랑크푸르트=정상필 EUI특파원

모든 부자가 우아하진 않다. 그러나 부자가 우아해지면 빛이 난다. 독일 중서부의 도시 프랑크푸르트(Frankfurt)는 우아함을 제대로 갖춘 부자를 보는 듯하다. 유럽의 도시답지 않게 높은 스카이라인을 보유한 프랑크푸르트는 유럽 중앙은행, 독일 연방은행, 증권거래소 등이 모여있는 경제의 중심지다. 베를린(Berlin)이 독일의 행정수도라면, 프랑크푸르트는 경제수도다.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부자도시 프랑크푸르트가 우아한 이유는 스카이라인 때문이 아니라 도시를 유유히 흐르는 마인(Main)강변의 중세풍 골목 골목에 위치한 수많은 미술관과 박물관 때문이다. 독일의 대문호 괴테(Johann Wolfgang von Goethe·1749~1832)의 고향이라 문화적 자존심이 센 프랑크푸르트가지만 왕가가 물려준 유산 하나 없이도 번듯한 미술관들을 지닌 것은 경제적 능력을 문화 인프라에 투자한 후대의 노력이 적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1980년대 조성된 마인강변의 미술관 거리에는 독특한 설계로 건물 자체로 눈길을 끄는 곳이 많다. 기하학적 형태의 수공예 박물관(Museum für Kunsthandwerk), 한국인 비디오 아티스트 백남준의 작품을 내세운 연방우편박물관(Bundespost Museum), 고전과 현대의 조화가 눈에 띄는 독일 건축 박물관(Deutsches Architekturmuseum) 등이 그렇다. 그러나 이중 연간 70만명 이상으로 가장 많은 관람객을 끄는 곳은 건물보다는 소장품이 화려한 슈테델 미술관(Stadel Museum)이다.

향신료 무역으로 돈을 모은 은행가 슈테델(Johann Friedrich Stadel·1728~1816)은 사망 1년 전 재단을 세워 그의 소장품을 시에 기증한다. '도시와 시민들에게 최고의 작품을 돌려주려 했던 그의 뜻을 받들어 재단은 미술관과 도서관, 학교를 설립한다. 미술관의 정식 명칭에 연구소가 붙은 것도 이 때문이다. 재단의 운영은 프랑크푸르트 시민 5명으로 구성된 이사회가 맡았다. 재단은 1878년 현재의 마인 강변으로 이사한다.

공공 미술관 개념의 미술관 개장은 1907년으로 지난 2007년 100주년 기념행사를 열기도 했다. 개장 얼마 후인 1915년 본 건물의 양쪽에 공간을 넓히는 확장공사를 마친 것이 지금 건물의 원형이고, 제2차 세계대전 때 폭격으로 파괴된 건물을 1963~1966년 복원했다. 미술관 측은 지난해 상대적으로 규

1907년 공공미술관으로 개관

기업·기관 기증 소장품 늘려

시대초월 '알짜 작품' 수두룩

모가 큰 현대미술 작품 전시를 위해 지금의 공간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 전시공간 3천㎡(약 900평)를 더 확보키로 결정한 뒤 설계공모를 마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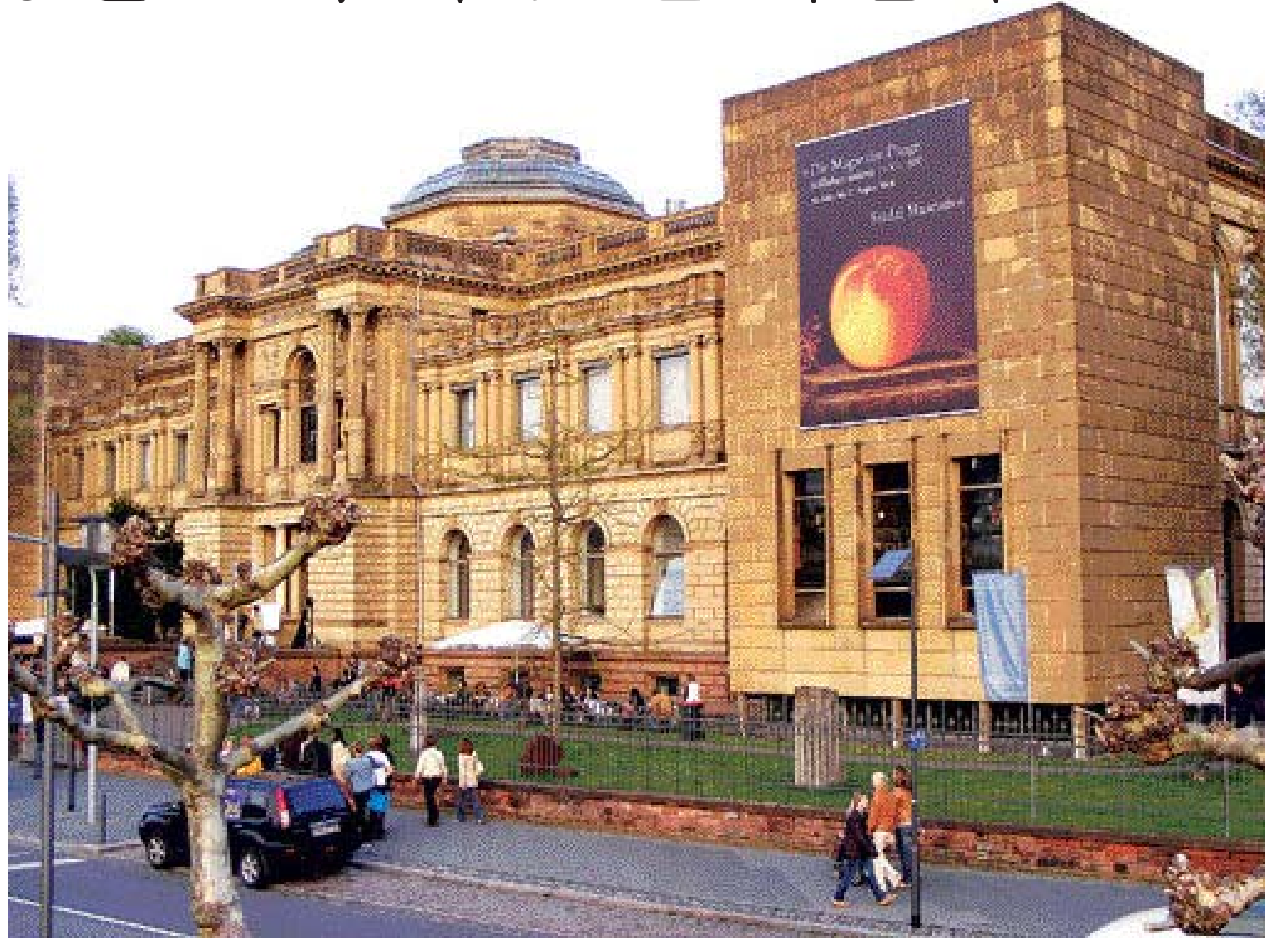
슈테델 미술관은 현재 14세기에서 21세기까지 회화 2천700여점, 조각 600여점 등 총 10만여점을 소장하고 있다. 미술관이 소장품을 지금의 규모로 불릴 수 있었던 것은 프랑크푸르트 시내 기관들의 공이 컸다. 프랑크푸르트에 본사를 두고 있는 독일중앙조합은행(DZ Bank)은 엔디 워홀 등 1945년 이후 유명 화가 47명의 작품 200여점을, 독일은행(Deutsche Bank)도 회화 및 조각 60점을 포함해 현대미술 작품 총 600여점을 각각 미술관에 기증했다. 미술관 측이 확장공사를 결정한 것도 주로 이 작품들을 전시하기 위해서다.

2차 세계대전 때는 나치정권에 의해 소장품 일부가 압수되는 수모를 당하기도 했다. 1937년 당시 현대미술 회화 77점 등 총 400여점의 작품이 '퇴폐적'이라는 이유로 압수당했다. 그때 압수당한 독일 표현주의 화가 막스 베크만의 '십자가'는 현재 뉴욕 현대미술관(MoMA)에 가고, 반 고흐의 '가세 박사의 초상'은 일반인이 소장하고 있다.

압수된 회화 중 프랑스의 야수파 화가 앙리 마티스의 '정물화'는 1962년 되찾았다. 앙리 마티스 작품의 반환을 위해 재정적 도움을 준 것은 프랑크푸르트에 본사를 둔 슈파카세 은행이었다. 나치에 의해 사라진 작품들을 되찾기 위한 미술관의 노력은 아직도 진행형이다.

슈테델 미술관에는 책 보면 알만한 대형작품은 많지 않다. 그러나 홀바인, 보티첼리, 램브란트, 세잔, 르누아르 등 이름만 들어도 아는 화가들의 작품은 수두룩하다. 유명 화가들의 알려지지 않은 작품을 고전에서 현대까지 시대를 초월해 볼 수 있는 곳이다. 독지가와 시민들의 힘으로 늘려온 소장품인 만큼 소박하지만 알찬 구색이다. 도시의 품위를 지켜주기엔 충분하다.

/camus@kwangju.co.kr



프랑크푸르트 슈테델 미술관 전경. 슈테델 미술관은 부자 도시 프랑크푸르트에 우아함을 선사하고 있다.

1970년대부터 펼친 문화정책의 산물... 미술관·박물관 13개 집결

■ 프랑크푸르트의 미술관 거리

프랑크푸르트 시내의 미술관 집결지(Museumsufer Frankfurt)는 마인강의 철교에서 평화의 다리까지 이어지는 구간(Schaumainkai)에 있다. 이곳에는 서로 다른 성격의 미술관 및 박물관이 이웃해 있다. 경제의 중심지 프랑크푸르트가 문화의 꽃으로 불리는 미술관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진 것은 1970년대부터다.

헤센주의 문화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힐마르 호프만(Hilmar Hoffmann)은 1977년 선거공약으로 미술관 거리를 들고 나왔고, 몇 해전부터 논의돼 오던 미술관 집결지 조성은 급물살을 타게 됐다. 본격적인 미술관 거리 조성은 1984년 시작됐다. 현재 슈테델 미술관을 비롯한 유대 박물관, 독일 영화 박물관, 현대 미술관, 건축 박물관 등 13곳의 미술관 및 박물관이 있다.

전후(戰後) 도시재건과 맞물려 있어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프랑크푸르트의 문화정책은 다분히 전략적이다. 미술관 거리를 조성한 것 외에, 2000년 들어서는 해가 가장 긴 시기인 8월의 마지막 주말을 축제 기간으로 정해놓고 시민들을 미술관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청소년들에게 무료로 밤늦게까지 미술관을 개방하는 '미술관의 밤' 행사는 프랑크푸르트 시가 적



올 초 열린 미술관의 밤 행사에 마인 강변의 미술관 거리 내 슈테델 미술관을 찾은 관람객들. 프랑크푸르트 당국은 미술관의 소장품 만큼이나 이벤트 등에도 관심을 쏟는다.

절하게 이용하는 대형 이벤트다. '미술관의 밤'은 범유럽 행사이지만 프랑크푸르트처럼 적극적으로 임하는 경우는 드물다. 2007년부터는 '프랑크푸르트 강변의 미술관들'이라는 뜻의 '뮤지엄우퍼 프랑크푸르트'를 로고로 제작해 마인강을 가로지르는 시내 7개의 다리에 광고현수막을 내거는 등 시너지 효과를 노리고 있다. 연간 200만명의 관람객이 이곳을 찾는다.



슈테델 미술관 내 19세기 전시실에서 관람객들이 티슈바인의 '시골에서의 괴테'를 감상하고 있다.



퍼시스 소통이 광주에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FRX

FURSIS FEEDS HOON